

嶺南樂府研究

—作家意識과 史話의 投影樣相을 中心으로—

金 榮 淑

<目次>

- | | |
|-----------------|---------------|
| 1. 序 言 | 3. 2 史話의 投影樣相 |
| 2. 創作動機와 素材 | 4. 作家의 樂府觀 |
| 3. 作品考察 | 5. 緒 言 |
| 3. 1 作家意識의 投影樣相 | |

1. 序 言

朝鮮後期 漢文學은 文學史的인 面에서 새로운 樣相이 나타남으로써 큰 變貌를 겪게 되었다. 日常語를 使用하여 教事의 漢詩를 創作하는가 하면, 近體詩나 科詩에 대한 반발로서 복고적인 古體詩를 창작하는 詩風이 생기기도 했고, 民謡趨向의 漢詩가 창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變化의 흐름은 여러 종류의 많은 樂府가 지어지면서, 자연스러운 韻律을 지닌 노래 형식의 시를 창작하여 定形의 詩形을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품은 17C 중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中國의 漢·晉代의 樂府와는 달리 音樂的인 면 보다는 歌詞의 内容에 따른 史話¹⁾와 작가 의식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詞史樂府였다. 이러한 악부의 대부분은 李東陽의 西涯樂府에 대한 擬作으로서, 현실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사실을 회고하면서 史話を 素材로 쓴 作品이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쓰여진 作品이기에 그 名稱과 概念도 統一되지 못했다.²⁾ 小樂府 作品으로 李齊賢, 閔思平, 申緯

- 1) 筆者는 本考에서 樂府 作品 앞에 쓰여 있는 序文을 史話라는 경칭을 사용한다.同一題旨의 서로 다른 악부에도 小序가 있는데 이 小序의 内容이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기록과一致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역사를 중시한 이야기라는 뜻에서 史話란 用語를 사용한다. 악부가 아닌 다른 시이도 小序가 있기 때문에 嶺南樂府와 같은 詞史樂府를 다루는데는 小序보다 史話란 말이 좋다고 생각된다.
- 2) 樂府와 樂府詩를 함께 쓰고 있으며 擬史樂府, 詞史樂府, 小樂府, 竹枝詞 등 여러 가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부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 것이 있으나 史話가 없는 것이며, 史話에 依據한 樂府로서는 金宗直의 東都樂府가 처음이었다. 그 후 沈光世, 金萬重, 林昌澤, 李灝, 李匡師, 申光洙, 安鼎福, 李學達, 金鑑, 趙顯範, 朴致馥, 尹達善, 李裕元, 趙秀三, 丁若鏞 등 여러 사람의 작품이 나왔다. 그러나 이 외에도 文集에 몇 수석 수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작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樂府는 대부분 新羅, 高麗, 朝鮮의 史話を 다룬 우리 나라의 固有한 作品이기에 이에 대한 研究는 상당히 興味로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樂府에 대한 研究는 대단히 不振했으나, 最近에 本格의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³⁾ 그러나 아직도 樂府研究의 初期段階라 할 수 있기 때문에 研究의 方法도 다양하리라 생각한다.

李學達의 樂府는 『嶺南樂府』 외에도 『海東樂府』가 있다. 創作年代가 다르고 創作當時의 環境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本考에서는 다른 사람의 樂府와 素材上特色이 보이는 嶺南樂府만을 대상으로 한다.

嶺南樂府에 대한 研究는 本質의 研究라기보다는, 作家에 대한 研究와 部分의 研究에 머무르고 있다.⁴⁾ 本考에서는 李學達가 1808年 그의 流配地 金海에서 創作한 嶺南樂府를 對象으로 하여 創作動機와 素材를 檢討한 후 作品에 投影된 作家意識의 樣相과 史話의 樣相을 고찰하고 아울러 作家의 樂府觀까지도 살펴보기로 한다.⁵⁾

2. 創作動機와 素材

李學達는 作品集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創作動機를 밝히고 있다.

當宁戊辰仲夏 余有河魚之疾 日寢臥于因樹屋之西軒 人有示余鄭麟趾高麗史數篇
紙墨剝缺 不堪便讀 輒沿洄揣摩 僅解辛禡二年 合浦軍謂燒酒徒一段意 犀然大樂曰
是可以作樂府矣⁶⁾

윗글은 作品創作의 直接의 素材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作

- 3) 李慧淳 教授의 研究가 重要視된다. 韓國樂府研究 I에서는 出現動因概觀, 形式 등을 다루었고 韓國樂府研究 II에서는 主題와 變奏를 中心으로 다루었으며 그 3 부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외에도 沈慶昊, 金相洪, 尹榮玉, 金宗鎮의 研究가 주목된다.
- 4) 嶺南樂府에 대한 作品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는 白仁鐵·李慧淳의 論文이 있다.
- 5) 研究對象으로 삼은 作品集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 嶺南樂府이다(楷書體 筆寫本 48 張).
- 6) 嶺南樂府 序文

作家가 樂府에 대한 애착과 創作意慾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史話에 依據한 樂府의 창작과정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作家自身의 外的인 表現으로 볼 수 있으며 그 裏面에는 間接的인 動機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李學達⁷⁾는 辛酉獄事에 연루되어 金海에서 24年間을 지내면서, 現實參與의 길이 막히고 거기에 대한 反感과 挫折을 참으며 일어나는 마음의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 創作을 한 것이 間接的인 動機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또 樂府集 序文에서 李學達는 茶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비추고 있다.

向見故上丁篠翁 流寓湖南六七年 作爲耽津樂府數十章 流轉京輦薦紳家 或訾之曰
是誠有異才 有異才 所以爲不詳 不當 泌之牙類也 無是而余又作爲若干篇 使異時流
入京輦 則薦紳家又將以爲如何 唉乎 言之者無罪 而聽之者有好惡 所謂物由人貴賤
者也⁸⁾

李學達가 茶山의 耽津樂府를 보고 嶺南樂府를 지었다는 표현이다. 茶山이 6~7년간湖南에 流配되어 외로운 處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은 것은 李學達의 創作動機와一致한다. 茶山의 작품은 서울 선비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서울지방 선비들이 어떻게 평을 할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작품을 창작했다. 특히 耽津樂府에 比較해서 嶺南地方의 史話를 素材로 한 것이라 하겠다. 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李學達는 茶山의 樂府를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했고 茶山과 같은 생각으로 영남악부를 창작했다.⁹⁾

嶺南樂府에 所載된 作品의 素材는 嶺南地方와 關聯이 있는 人物, 傳說, 風俗 기타 史話이다. 時代別로 보면 新羅時代·高麗時代에 局限되어 있고 朝鮮時代의 史話는 다루지 않았다. 이 점은 重要하다. 첫째, 嶺南地方에 局限한 것은 自身이 嶺南地方에 流配生活을 오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流配 前에는 嶺南과 無關했지만 半生을 嶺南地方에서 보내다보니 他鄉에 대한 특별한 感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된다. 둘째, 時代를 新羅·高麗로 잡은 것은 高麗史의 史話を 보았다는 것이며, 朝鮮時代의 史화는 自意의 으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意圖의 으로 회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李

7) 李學達의 作家論에 대한 研究로는 白仁鐵의 碩士論文이 있다.

8) 嶺南樂府 序文

9) 李學達와 丁若鏞은 實學者로서 類似한 面이 많다. 文學觀, 著述, 流配 등 共通性이 많다.

學達는 素材 選擇과 創作過程을 다음과 같이 謂하고 있다.

然記誦所及考證 甚鮮 是以地廣如尙州 名碩如安東 而並闕而無傳 若其事係本朝 則既不能探考事文 又烏知其不妄誕邪 譲慎之至 一不及焉 至知年代之舛差 事實之僞謬 或塗人聽見 而譏之未詳 而併捨之 或非世談道 而知其可厭 而姑傳之 是在乎通人韻士觀過而忽情 譏繆而賞音耳¹⁰⁾

이 글을 보면 嶺南樂府의 創作過程을 쉽게 알 수 있고, 對象作品과 史話의 選擇態度도 알 수 있다. 될 수 있는대로 史話의 内容이 확실한 것을 택했다는 것은 作品과 史話의 關係가 긴밀함을 더욱 강조하는 말이다. 各 作品의 素材를 보면 忠臣, 烈女, 貪官污吏, 僧侶, 學者, 妓女 등 人物을 素材로 택한 것이 많고 遺跡, 歌曲, 器物, 佛塔, 植物, 地名 등을 素材로 택했다.

다른 사람의 樂府와 類似한 素材도 많고 獨特한 素材도 있다. 그러나 이를 素材는 李學達가 序文에서 달했듯이 通人 韵士들이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이 대부분이고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高麗史 東國輿地勝覽에 收錄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일반 시인들이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素材의 選擇內容을 보면 가장 主眼을 둔 것은 特異한 史話란 점이다. 人物이나 風俗, 傳說 할 것 없이 神異한 것, 特殊한 것, 稕貴한 것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러한 素材趨向態度는 嶺南樂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朝鮮後期의 다른 樂府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作品考察

樂府를 考察하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올바른 研究方法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樂府가 지닌 性格이 一般 漢詩와 다르기 때문에 方法도 달라야 할 것이다. 個個의 作品과 作家를 연구하고, 觀點을 달리해서 檢討도 해 보고, 内容과 形式을 아울러 살펴보는 등 여러 가지 方法을 통한 천차이 이루어질 때 보다 나은 方法이 定立될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本考에서는 史話를 作品에 投影한 關係를 考察하는 것이 主眼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散文(prose)과 韵文(verse)의 關係를 考察하는 것이 되겠으며, 나아가 文學과 歷史의 關係를 研究할 수

10) 嶺南樂府 序文

11) 이러한 점은 다른 樂府作家의 素材 趨向態度와도 恒通한 것이라 생각된다.

있는 契機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상당한 문제점도 뒤따르리라 생각된다.

嶺南樂府에는 6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많은 작품을 전부 다루는 것도 의의가 있겠으나 作家意識과 史話의 樣相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16편의 작품을 分析 檢討코자 한다.

3. 1. 作家意識의 投影樣相

詩를 考察하는 데 있어서 作家의 意識이 作品에 어떻게 投影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떤 意味를 가지는지를 檢討하는 것은 重要하다. 作家의식은 作家가 생각하는 하나의 認識이라 할 수 있다. 作家는 作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낸다. 이러한 생각이 시 작품 속에 投影되어 있는 樣相이 어떠한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研究方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비록 한 가지 뿐이라 해도 作家와 作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嶺南樂府에 所載돼 있는 작품 가운데는 作家의식이 사실에 대해 對立的인 關係¹²⁾를 지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에 대해 調和的인 關係를 가지는 것도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側面에서 그 投影樣相의 考察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對立

작품(1) 燒酒徒

高麗辛禡二年 倭寇合浦(今昌原府) 先是元帥金眞 大集一道妓樂 與麾下晝夜酣飲
軍中號曰 燒酒徒 以鎮嗜燒酒也 且刑杖濫酷 一軍怨憤 及寇至 軍士郤立 不戰 曰 元
帥使燒酒徒擊賊 我輩何爲 遂至於敗

昨日之酒君爲政 어제 술 마시는 일 그대는 政事로 했으나

今日之事寧我與俱 오늘의 일 이찌 우리가 함께 할까

政須百榦與千舳 정사는 백 개의 그릇, 천 개의 술잔을 준비해

氣酣突前氣無不殊 醉氣中에 돌진하여 모두 죽여서

剗其麌以爲飲器 해골을 쪼개어 술잔 만들어

與元帥載斟載歛 元帥와 더불어 주고 받고 하라

何必用我輩爲先驅 하필 우리를 앞세우려 하느냐

12) 對立的인 關係는 서로의 反感的인 感情이 작용하는 관계를 일컫는다.

이 작품은 元帥 金鎮이 合浦에 주둔한 왜군을 치기 위해 갔다가 酒色만 일삼고 부하에게 싸우려 가라는 명령을 하자 軍士 鄭立이 抗命했다는 素材를 취한 것이다. 이 작품은 ‘그대’와 ‘나’의 對立의인 關係를 基本의인 秩序로 나타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될 만한 부분은 1行과 2行이다. 金鎮一派를 ‘그대’로 나타냈고 軍士 鄭立을 ‘나’로 나타냈다, 作家는 作品속의 ‘나’와 同質의 意識을 지녔으며, 그대에 대해서는 反感的이고 對立의인 關係를 지니면서 興奮된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關係는 反復의인 秩序에 의해 더욱 深化되고 있음을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1, 3, 5, 7, 9行은 1行을 기본으로 한 同質의 心象이 변화되면서 발전적으로 짜여진 것이고, 2, 4, 6, 8, 10行은 2行을 기본으로 한 同質의 心象이 變化되면서 발전적으로 짜여진 것이라 하겠다. 훌수행이 支配者, 上層者를 나타냈다면 짝수행은 被支配者, 下層者의 心象을 나타내어 두편의 異質의 意識이 對立하고 있으며, 作家는 被支配者の 편에 서서 既成의 上下關係에 불만을 품고 반감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作家는 史話를 對立의인 關係에서 把握하여 失政을 謔刺的으로 나타냈다.

작품(2) 嘸鵠令

朱仁遠¹³³爲慶尙道按廉勸農使 惡聞鵠聲 常令人嚇以弓矢 一聞其聲 即徵銀瓶 人不堪其苦

寧當七年病	차라리 7년병 당할지라도
不聞嚇鵠令	까치 쫓으라는 명령 듣지 못하겠네
寧出五銅鉢	차라리 다섯개의 銅鉢을 받칠망정
不納一銀瓶	한 개의 銀瓶은 못바치겠네
爾父清如水	그대 아비 청렴하기 물 같았는데
文節真無子	文節公은 참으로 자식이 없구나
向聞劉尚書	앞에 들으니 劉尚書는
號令無古初	호령이 전에 없던 처음 있는 일
喧鶻搜林木	울빼미 소리에 숲을 수색하고
走鹿放牢獄	사슴을 놓지면 감옥에 가두겠다.
軍民至今言	軍民들 지금 하는 말
何時無此賢	어느 땐들 이런 어진 사람 없을까?

작품(2)는 朱仁遠의 惡政과 苛歛에 시달리는 백성의 苦難을 크게 부각

133) 高麗史에는 朱印遠으로 되어 있다(高麗史 32卷 世家 32年).

시킨 작품이다. 작품(2)의 기본질서는 역시 ‘나’와 ‘그대’(爾)의 對立關係이다. 이런 점은 작품(1)과 類似하다. 작품(2)에서 作家意識은 肯定的인 것과 否定的인 것을 通해 對立의 關係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1)과 같아 ‘나’와 ‘그대’의 對立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行과 2行, 3行과 4行은 반복을 통해 對立되는 感情을 漸增시켰으나 나머지 부분은 일정하지 않다. ‘七年病’ ‘五銅鉢’ ‘爾父’ ‘軍民’은 肯定的인 心象을 지닌 것이며, ‘嚇鵠令’ ‘一銀瓶’ ‘文節’ ‘劉尚書’ ‘喧鶻’ ‘走鹿’ ‘牢獄’ ‘此賢’ 등은 否定的인 心象을 지닌 것이다. 作品 속에서 作家는 尔에 대한 否定的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讀者로 하여금 真情을 理解하게 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강조적인 표현은 寧과 不의 반복적인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7년 동안 병을 앓는 것과 까치소리 듣는 것, 다섯 개의 銅鉢과 한 개의 銀瓶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七年病과 五銅鉢이 훨씬 더 과중하지만 朱仁遠으로 인하여 非正常的인 狀況이기에 嘗鵠令, 一銀瓶을 더 과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체념을 지닌 반항적 표현인 것이다.

작품(3) 鐵文魚

麗季有裴元龍¹⁴⁾者 爲鷄林府尹 侵漁百姓 至歛民鐵杷截歸家 府民目爲鐵文魚府尹
八稍魚 俗名文魚 鐵杷之形似之故云

鐵文魚何不把人畜	철둔이야 어찌 사람의 둑은 밭은 파지 않고
而反爲人漁	도리이 사람에게서 둑어가느냐
三叉屈折如指爪	세 갈래로 굽어 손톱같은게
爬民之肉吮民腹	백성의 피와 살을 긁고 빨아
而輪爾田廬	너 시골집에 설려 가면서
又敵我牛車	우리 牛車도 부수는구나
鷄林自此鐵無餘	체림은 이로부터 쇠불이란 남은게 없으니
抨弓去射水文魚	활가지고 가서 水文魚를 쏴버리자

작품(3)은 裴元龍의 苛歛한 惡情을 諷刺한 작품인데, 鐵文魚는 文魚의 比喻로서 수탈을 일삼는 裴元龍을 상징하는 象徵物로 登場했다. 作品(3)도 基本的인 秩序는 ‘나’와 ‘그대’의 對立的인 構成으로 되어 있다. 이의

14) 裴元龍은 高麗史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裴元龍者 素稱能吏附興邦爲養父 贈以宅舍 爲鷄林府尹 侵漁百姓 至截鐵杷歸之家
鄉人目爲鐵文魚府尹(高麗史 列傳 卷39 聖臣條)

대표가 될만한 부분은 5行과 6行의 대립이다. 작품(1)과 類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2行과 5,6行이다. 1,2行은 鐵文魚인 裴元龍과 府民의 對立이며, 3,4行도 裴元龍과 府民의 對立이다. 5,6行은 ‘그대’에 해당되는 田盧와 나에 해당되는 牛車의 對立이며, 7,8行은 感情의 極限的인 對立으로 被支配者가 支配者에게挑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被支配者와 支配者の 對立에서 感情의 變化는 作品(1)과 類似하여 1行부터 8行까지 減增의 으로 나타나 있다. 이 詩는 修辭의 表現을 重視하고 있는데 比喻의 方法을 通해서 主題를 잘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裴元龍을 鐵文魚라 할 것은 作家의 獨自의 表現이 아니라 府民들이 ‘鐵文魚府尹’이라 한 데서 따온 것이다.

작품(4) 會蘇歌

儒理王時 中分六部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自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繢
魔乙夜而罷 至八月望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戲 皆作爲之
嘉俳 是時負家一女起舞嘆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 作歌會蘇曲 又今人以
八月十五日 謂之嘉外 嘉外即嘉俳之謂也

會蘇復會蘇	회소의 회소여
大家都鳴鳴	큰집엔 노래소리 가득한데
不爲具餧勞	음식 만들고는 고생하지 않네
但恨績麻跡	길쌈 짖게 한게 한스럽구나
施設復施設	만들고 준비하고 또 만들고
是日嘉俳節	이 날은 가배절
明活山頭月如盤	명활산 머리 달은 쟁반 같고
六部兒女如冰雪	육부처녀들 눈처럼 아름답다.
爾家金人頭	그네 집에 모인 사람 머리모양 아름답지만
我家秋節遊	우리 집은 가배놀이 준비하네
王姬壓坐啞其笑	왕녀들은 둘러앉아 웃음지껄이며
金耽東海爭輪流	금耽 東海 다루어 굴리네
但令女家勤早起	여인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여
績麻乙夜紛委痔	밤늦게까지 길쌈하니 이리저리 쌓였네
都來側塞	모두 시골 구석에서 와
寶大部庭	태부의 땅을 아름답게 하고
會蘇會蘇還是爾	회소 회소 부르며 그대들은 돌아오네

작품(4)는 新羅時代 민속놀이를 素材로 다룬 것이다. 7月 15日부터 8月

15日까지 女人們을 모아 두 편을 만들어 繢麻 경쟁을 한 후 패한 편은 이긴 편에게 酒食을 대접하며 歌舞를 즐기 所謂 嘉俳놀이를 作品化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敗한 편의 女人이 탄식하여 ‘會蘇’라 한 裏面의 心象을 주로 나타냈다고 하겠다. 作家는 作品에 投影시킨 自我를 通하여 弱한 者의 편에 서서 王姬에 대한 反感을 지니면서 對立的으로 그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作品처럼 行의 反復의인 對立을 강조한 것이 아니며 敗한 者로서 勝한 者에 대한 對立이 아니라, 女人們을支配하면서 特權을 누렸던 上層 王姬들에게 反感을 가지고 對立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2, 9, 11, 12, 16行은 ‘爾’에 대한 心象을 나타낸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我’에 해당되는 心象을 나타낸 것이다. 이 會蘇曲의 노래는 널리 알려진 古詩歌로서 李學達 외에 다른 사람의 作品도 많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은 가 베놀이의 즐거움, 民俗과 삶과의 關係 등을 調和있게 나타낸 것으로 李學達의 作品과는 差異가 있다. 이런 점은同一한 素材를 취하더라도 作家의自我意識이 다르기 때문에 作品에 다르게 投影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調 和

前項에서는 作品에 投影된 作家意識의 對立的인 關係를 考察하여 보았으나 本項에서는 作品에 投影된 自我의 調和의인 關係를 살피고자 한다. 調和의인 關係는 作家意識과 事實과의 관계가 어떤 갈등이나 반감, 긴장된 감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和合的, 友好的, 同情的, 讚揚의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調和의인 關係는 시의 主題를 더욱 잘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事實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한다. 人物의 讚揚을 主題로 한 작품은 대부분 이러한 關係를 지닌다고 하겠다.

작품(5) 竹竹詞

竹竹大耶州(今陝川)人 善德王時 爲舍知佐本州都督金品釋幢下 百濟將軍允忠來攻州城 品釋不能守 自刎而死 竹竹收餘卒 閉城門 以拒之 龍石謂竹竹曰 今兵勢如此 不若生降以圖後効 畏曰 吾父名我以竹竹者 使我戴寒不凋 可折而不可屈 岂可畏死而求生乎 遂力戰城陷 輿龍石同死 王聞之震悼 贈竹竹級殮 龍石大奈麻

寧爲死竹竹 차라리 대나무처럼 죽을지 인정

莫爲凡草木 초목처럼 살지는 않겠네

翹翹龍石間 높고 우뚝한 龍石 사이에서도

可折不可曲 부러질지 인정 굽게 차라지 않네

西風泄河來	서풍이 물가에서 불이오고
歲寒增蒼緇	날이 차가워도 푸즈름 더하네
哀哀大耶城	슬프다 大耶城이여
斬伐歸邊陸	죽이신 언덕으로 돌아가네
竹竹在世時	죽죽이 세상에 있을 땐
脩隸蔽南國	늙은 가지로 남국을 가렸도다
今日竹竹死	오늘 죽죽이 죽고 있으니
顧名眞不惡	그 이름 생각하니 정말 훌륭하네

이 작품은 竹竹의 勇猛과 歲寒不凋하고 折而不可屈하는 대나무의 상징성을 投影시켰다. 史話나 作品 모두 反對의 感情을 나타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作家意識은 작품 속의 竹竹에 대해 友誼的, 讀揚的, 和合的인 感情으로 나타나 있다. 作家는 竹竹의 편에 서서, 史話에서 나타난 竹竹에 대한 意味보다 節義를 더 부각시켜 주고 있다. 2, 6, 7, 8, 9 行에서는 作家의 同情的인 面을 잘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竹竹이란 題目부터가 대나무와 人名의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고, 대나무와 사람이 共通의으로 지닌 心象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작품은 隱喻的인 方法에 의해 표현되었다고 하겠다. 前半部에서 竹竹을 대나무로서, 그 不變하는 志節을 나타내다가 後半部에서는 人間으로서의 竹竹이 행한 功勳을 칭양하여 自我의 調和의인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6) 玉纖纖

按高麗鄭隱先生和田祿生贈金海琴妓玉纖纖詩序云 曾宰相埜隱田先生祿生爲鶴林判官 時有贈金海琴妓玉纖纖詩云 海上仙山七點青 琴中素月一輪明 世間不有識纖手 誰有能彈太古情 後十餘年 埜隱來鎮合浦時 纖纖已老矣 呼置左右因使之彈琴 余聞之 追和其韻 題于壁上如此云

古調伽倻琴	가아금 옛 목조
彈指玉纖纖	우선 설이 타는구나
金海佳人熒半白	금해의 가인은 반백의 머리도
楨山遊客涕霑須冉	회산의 객은 눈물에 수염적신다.
君不見鶴林一樹似江潭	그대는 계림 수풀 보이지 않나 나무가 강물같네
樹猶如此人何堪	나무가 이처럼 모일진데 어찌 사람을 알아볼꼬

金海琴妓 ‘玉纖纖’과 埜隱 田祿生의 情感을 詩로 昇化시켰다. 史話を 통해 당시의 情景을 상상해 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나

타였다. 앞에서 언급한 ‘竹竹詞’처럼, 玉纖纖이란 題目부터가 아름다운 女人の 容貌를 연상케 한다. 半白의 머리인 老境의 감회와 옛정을 그리워 하는 회포는 自我와 調和있게 나타나 있다. 史話의 내용을 받아 들이면서 作家意識은 두 사람 사이에서肯定的인 面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7) 大昏子

按補闕集 僧無己 自號大昏子 隱於咸陽之智異山 一衲三十年 每冬夏不出 卷肚皮 束于帶索 春秋肚鼓遊山 日食三十斗 一坐必浹旬 起行則朗吟作偈 山中七十餘庵 每食一庵 輒留一偈 其無住庵偈云 此境本無住 何人起此堂 惟餘無己者 往來本無妨

大昏子發昏時	대혼자 다니지 않을 땐
束帶索一肚皮	배 가죽을 말아 끈으로 묶고
大昏子出歲時	대혼자 나다닐 땐
五臺嶺雙鐵鞍	오대산 고개에 철사선 신었네
不乞一斗飯	한말밥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不補一衲衣	한벌의 중옷밖에 더 입지 않네
道是風塵子	비글세상 사람이라 말하고
道是布俗師	포대멘 스님이라 말하네
嘵由來無住者	소리치며 와도 사는 사람 없으니
無己道爲誰	無己는 누굴 위해 말하는가

奇異한 容貌와 行動을 하고 다니는 僧 無己의 譜譜的인 面을 詩로 나타낸 것이다. 1行부터 6行까지는 史話의 내용을 投影시킨 것이고, 7, 8行은 作家 자신의 主觀的인 感情을 나타낸 것이며 9, 10行은 偲頌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史話의 해학적 내용이 시작품에서도 해학적으로 投影되었다. 史話에서는 行動과 形容의 表現이 具體的인 데 비하여 詩에서는 大昏子의 모습이 상징성을 띤 해학이다. 이 시에서 作家意識은 大昏子의 容貌나 行爲에 대해 同情의이고 友好的인 관계로 나타나 있다.

작품(8) 天官女

金庾信爲兒時 其母萬明 日加嚴訓 不妄交遊 一日偶宿女隸家 母面教之曰 我已老 日夜望汝成長立功名 今乃與屠沽小兒遊戲淫房酒肆耶 號泣不已 庾信即於母前 自誓 不復過其門 一日被酒還家 馬尊舊路 誤至女家 女忻且怨 垂泣出迎 庾信既寤即斬所乘馬棄鞍而返 女作怨詞一曲 傳之 按東京雜記 天官寺 在慶州府五陵東 即舊天官家也 或云 天官其女名也

天官女	천관녀여
莫唬怨	성내자 말타
門前斬馬何足云	문전참마 무엇이 대단한고
悔不與割其簪	그 팔을 잘라 네게 주지 않음이 후회스럽구나
宮中智照玉所嬌	궁중의 지혜로움 왕이 사랑하는 바이나
猶常侍母以獨處	연체나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거하네
金家角殲不凡人	김씨집 각찬은 보통사람 아니니
山中巍石天所與	산중 바위들은 하늘이 주심이라
娘臂城前擊賊時	낭비성 앞에서 적을 무찌를 때에
斬馘五千力超距	오천명 미리베이 그 힘 뛰어나도다.
天官女應始知	천관녀 이제 웅당 알 것이다.
公之義烈本如許	공의 義烈本如許

김유신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훈을 듣고도, 어느 날 여종집에 잠을 자서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은 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오던 중 길을 잘못 들어女家에 당자 깨어난 후 말을 죽이고 돌아 갈 때 여인이 憎罰를 불렀다는 史話를 作品으로 나타냈다. 이 詩도 作品(5), (6), (7)과 마찬가지로 詩的自我는 友好的이고 調和的인 立場에서 天官女를 위로하고 있다. 김유신의 義烈을 찬양하고 김유신의 答詩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表面的으로는 金庾信을 讚揚하는 面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裏面에는 天官女의 슬픔에 대한 同情과 위로를 통하여 作家의 意識을 投影시키고 있다.

이러한 作家意識의 投影樣相은 全體的으로 볼 때 對立的인 것 보다는 調和的인 것의 많다. 이와 같은 作家意識의 對立, 調和의 投影은 주로 人物을 素材로 한 樂府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人物에 대한 褒貶이 史話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李學遜의 對立과 意識世界는 일단 이 史話의 褒貶을 基準으로 했다. 史話에 貶示된 것을 讚揚한다든지 史話에서 褒한 것을 貶下시킨 것은 없다. 따라서 李學遜의 史觀은 既存의 價值評價를 중시하면서 史話의 褒貶에 따라 貶일 경우는 對立의으로, 褒일 경우는 調和의으로 나타냈다. 특히 貶일 경우 격렬한 감정의 표현으로 자신의 批判을 附加해서 史話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民衆의 裏面에 쌓인 불만과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조선 후기 시대의 지방 관원들에게 警鐘을 울리는 작품으로도 보였다고 생각된다.

3. 2. 史話의 投影樣相

嶺南樂府는 史話를 素材로 했고, 史話의 内容을 전달하기 위한 手段으로 지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作品에는 어떤 形態로든지 史話가 投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남악부에 所載한 作品에는 史話가 어떻게 投影되어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部分의 擴大

散文의 史話를 韻文인 詩로 바꾸면서, 長篇의 긴 부분을 省略하고 어느 한 부분을 擴大시킨 경우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史話의 投影樣相은 史話와 어떤 關係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작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작품(9) 黃倡郎

按慶州府志 黃倡郎 新羅人 世傳 倡年七歲 入百濟 市中舞鋤 觀者如堵 百濟王聞之 召觀命升堂舞鋤 倡郎因刺王 國人殺倡郎 新羅人哀之 像其容爲假面 作鋤舞之狀 至今傳之 又按李詹黃倡郎辨曰……遂爲左右所害 母聞號哭 遂喪明 人有爲其母謀還其明者 令人鋤舞於庭 紿之曰 昌來舞矣 前言誣耳 母大喜泣即還明

郎當郎當	피곤하고 초라하구나
左血毋右趾傷	왼쪽 손가락에는 피묻었고 오른발은 상했도다.
翩然來者黃昌郎	날쌔게 오는 자 황창랑이로다.
昨爾擁長鋤	지난번에 긴 칼 들고
去刺洮河玉	가서 자하왕을 쳐르니
爾是秦舞陽	秦나라 舞陽같구나
奈何秦國強	진나라 강하니 어찌 할꼬
人乎鬼乎何悵悵	사람인가 귀신인가 어찌 그려 허매는가
憇憶而娘血泣望	응당 생각하니 너의 모친 피눈물 흘리며
西風吹爾還娘傍	서녕바람 너를 봄이 이미니 곁에 놓았으면
黃昌娘黃昌娘	황창랑의 어머니여
前言誤爾不須信	앞의 말 거짓이니 그 말 믿지 마시오
黃昌來舞兮	황창이 돌아와 춤을 추고 있다오
盍即開眼覰	어찌 빨리 눈을 뜨지 않는가요

이 작품과 같은 제독의 시는 金宗直의 東都樂府를 위치해서 다른 사람의 작품 여러 편이 있다. 악부를 짓기에 좋은素材였다고 생각된다. 史話의 구성이 ① 칼춤을 잘 춤 ② 복수 ③ 배제왕 죽임 ④ 황창랑 죽음 ⑤

어머니 실명 ⑥ 어머니 開眼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史話를 作品에 投影함에 있어, 작가는 백제왕을 죽이고, 황창량이 죽게 되고 어머니가 失明되는 話素를 확대시켜 작품화한 것이다. 전반부는 백제왕을 죽이는 용감한 창랑의 면모를 동적으로 표현했고, 후반부는 어머니 실명의 비극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눈을 뜨게 하는 염원으로 나타났다. 이 시에서 작가의식은 창랑의 편에 가깝게 작용하고 있으며 황창량이 춤추는 것과 어머니의 실명에 대해서 중요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고 생각된다.

작품(10) 王母去

金后稷新羅真平王時人 王好田獵 后稷切諫不聽 將死語其子曰 我爲人臣 不能匡君之惡 我死遂瘞於王遊田路側 其子從之 它日王出獵中路 有聲若曰 王母去 王聞問之 從者曰 金后稷臺也 遂諫臨死之言 王潛然出涕 終身不復田獵 人謂之墓諫也

王母去	왕이여 가지지 마십시오
王不聽余反余怒	내 말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내시네
生不能裨君	살아서 일ぐ님 돋지 못했으니
死以葬來路	죽어서 임금다니는 길에 장사하게 했네
王母去	왕이여 가지지 마십시오
王之好獵今猶故	왕의 사냥 좋아하심이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
生不能盡言	살아서 말씀 다 드릴 수 없었으니
死亦以一語	죽어서 또한 한 마디 드립니다.
王母去	왕이여 가지지 마십시오
王母去	왕이여 가지지 마십시오
王庶聽余一回顧	왕께서 내말 들으시고 한번 돌아 보십시오
忠誠九地尙凜然	그충성 저승에서 오히려 둠름하네
古之遺直阿殮墓	옛날의 바른신하 아찬묘일세

다른 사람들의 악부에도 이 작품과同一한 題目的 작품이 여러편 있다. 史話의 짜임은 ① 金后稷 ② 왕이 사냥을 좋아함 ③ 后稷의 切諫 ④ 왕이 듣지 않음 ⑤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음 ⑥ 왕이 사냥가다 가지 말라는 소리 들음 ⑦ 왕의 물음과 신하의 대답 ⑧ 왕의 반성과 禁獵으로構成된 史話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金后稷의 遺言을 擴大시켜 作品에 投影시킨 것이다. 史話에서 遺言의 내용은 간단하다. 그러나 作品에 投影된 遗言의 樣相은哀切하고 적극적이다. 遗言이 擴大되어 저승에서 임금에게 말하는 獨白으

로 나타났다.

史話의 부분을 擴大시킨 작품이 지니는 共通性은 事實보다는 作家의 상징적인 표현을 중시한 점이다. 史話에 없는 事實을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黃信郎이 춤춘 사실을 背景으로 黃信郎의 춤추는 모습과 倡郎母의 슬퍼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動的인 감정표현으로 되게 하여 노래의 의미를 훨씬 더 확대시키고 있으며, 金后稷의 諷諫을 背景으로 反復, 強調에 의해 金后稷의 간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확대의 方法도 작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史話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感情을 노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史話의 부분을 확대시켜 노래로 불리워질 때 그 노래는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인 양상을 지나면서 그 외 복합적인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악부의 外的인 要素가 되겠는데 이러한 외적인 요소는 史話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史話에서 점진적으로 聯想되어지는 心象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全體의 縱縮

作品 가운데는 長文의 史話를 簡潔하게 응축시켜 事實의 内容보다는 全體의 意味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작품은 많지는 않으나 投影方法이 보통 漢詩와 類似한 面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작품(11) 上書莊

上書莊在慶州府南六里金鰲山北 羅末崔孤雲致書高麗太祖 有鶴林黃葉鵠嶺青松之語 羅王聞而惡之 後人名其居曰 上書莊 按金富軾三國史本傳 署曰 崔致遠字孤雲一字海雲 年十二入唐遊學……賜紫金魚岱 出爲諸道兵馬都統高駢從事 表狀書啓皆出其手……中和五年 奉詔歸國 留爲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隱伽倻山……

飛魚紫帶返窮荒 飛魚紫帶 하사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枯木禪居霜夕陽 빠마른 나무처럼 절에 거하니 석양이 이동구나

一片鶴林黃葉裏 한 조각 신라가 황엽 속에 있는데

行人指是上書莊 행인이 이를 가리켜 上書莊이라네

이 작품의 背景이 되는 史話는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러한 史話を 시로 창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作者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史話を 별로 중시하지 않고 紫金魚帶 하사 받고 귀국하여 入山한 사실만을 부각시켰으며, 아울러 고려태조에게 “鶴林黃葉, 鵠樹青松”이란 一種의 참시를 지어준 것을 은유하여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결부시키고 있다. 작품소재가 풍부하고 史話의 内容이 자세한데도 불구하고 7언 4행의 짧은 작품을 창작한 것은, 짧은 詩行에 史話의 意味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작가 자신이 사화의 내용을 악부시에 투영시킨 태도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작품(12) 陵華峯

陵華峯在泗川縣南三十里 高麗安宗葬於峯下 初景宗妃皇甫氏 出居私第 嘗夢登鶴
 嶺 旋流溢國中 盡成銀海 卜之曰 生子則王有一國 后曰 我既寡何以生子 宗室郁 太
 祖八子也 所居與妃第近 因與往來 通而有娠 成宗時 后宿都第 家人積薪于庭而焚之
 百官奔救 成宗亦亟往問之 家人以實告 后慚恨 此還其第 縫及門胎動 攀門前柳枝
 免身而卒 因命擇姆 以養其兒 竟歸于郁 即顯宗也 遂流郁于泗川縣 郁工文詞 贈押
 送內侍高玄詩曰 與君同日出皇畿 君已先歸我未歸 旅檻自嗟猿似鎖 離高還羨馬如飛
 帝城春色魂交夢 海國風光淚滿衣 聖主一言應不改 可能使我老漁磯 又深於地理 嘗
 密遺顯宗金一囊 曰 我死以金贈術師 葬我縣城隍堂南歸龍洞 郁竟卒于貶所 顯宗如其
 言葬之 及即位追尊孝穆大王 廟號安宗 後移葬乾陵

陵華洞草茸茸	능화동 물 무성한데
丹旌素旐來遠峯	붉은기 흰기 먼 산 봉우리에 펼럭이네
幾日門前傷折柳	문앞 벼드나무 잡으며 죽은날 며칠인고
它年銀海謾飛龍	뒷날 바다의 용이 멀줄 몰랐네

이 작품은 長文의 史話內容을 응축시켜 나타낸 것이다. 사화의 구성은 ① 陵華峯의 위치 ② 경종비 황보씨의 꿈 ③ 꿈해설 ④ 郁과 皇甫氏 통정 ⑤ 임신 ⑥ 皇甫氏 죽음 ⑦ 顯宗 출생 ⑧ 郁의 流配 ⑨ 郁의 贈詩 ⑩ 郁이 顯宗에게 金을 주어 葬事 부탁 ⑪ 郁의 죽음 ⑫ 葬事 및 追尊으로 이 어지는 서사적인 짜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를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郁과 皇甫氏의 悲劇的인 面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에 대한 感懷를 주로 나타냈다. ‘陵華洞草茸茸’이란 표현은 陵華峯을 둘러싼 넓은 空間으로서 全體의 분위기를 凝縮시킨 것으로 安宗의 事緣을 암시하고 있으며 ‘幾日門前傷折柳’에서는 皇甫氏와 관련된 史話의 事實들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은 史話의 事實的인 면 보다는 史話를 둘러싸고 있는 抒情的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全體를 응축시킨 작품은 詠史의in 樂府보다는一般的의in 近體詩에 더 가깝게 投影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작품에서는 사실의 전개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나, 시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史話와 일치하거나, 사건

의 표현이 구체적인데 비해 시 전체를 응축시킨 작품은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3) 事實과 創作의 調和

史話의 内容을 거의 그대로 작품에 투영시킨 것을 事實의 表現이라 한다면 史話에 없는 部分을 創造的으로 투영시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을 創作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부분의 확대에서 제시된 것과는 달리 이 창작적 投影은 그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부분의 확대에서는 全體의 일부를 확대시킨 것으로, 확대되어 가는 詩想이 史話와 直接的인 관계를 지녔지만 創作의 조화에서는 史話와 間接의인 관계를 지녔다고 하겠다. 확대의 경우가 史話의 발전적인 詩想이었다면 創作의 경우는 詩의 主題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 동원된 詩想이라 하겠다.

작품을 짐토해 보기로 한다.

작품(13) 金籠巖

金濤善山人 高麗恭讓王四年 以禮儀判書 如大明賀節 還至鴨綠江 聞我太祖大王受禪 寄書其夫人柳氏曰 吾渡江即無所容其身 夫人有娠 生男也 名以楊燧 生女也名其命德 仍送其朝衣及襪曰 夫人下世 以此合葬 且以到江上還向中朝之曰 爲我忌日 葬後勿用誌文墓碣 遂還入中國 居于荊楚之間 後人取其所居鄉名 稱爲金籠巖先生云

金籠巖絕巘嵒	김농암은 정말로 높은 바위
渡江不落帆	강건너와도 배에서 내리지 않고
寄書眞封幽	조심스레 편지 부쳐 한 말
生女復生男	딸 낳고 아들 낳아
命名鄉須許	鄉須譜이라 이름지어요
朝襪與朝衫	옷과 목화(木襪) 보내니
同穴埋嶺南	영남땅 무덤에 함께 묻어 주세요
要知我夫日	자아비 죽은 날을 알려면
視我還歸驗	내 말 들려 보낸 걸 보세요
要知我歸處	내 돌아온 곳 알려면
楚水迷江潭	초수의 강 언덕을 찾으세요
君不聞鄭侍中	그대는 정포온을 듣지 못했나요
善竹橋頭血如含	선죽교가엔 피가 흠뻑 젖었다오
又不聞元處士	그대는 원문곡을 보지 못했나요

雉嶽山間孤草庵	치 악산간 의로운 초가집 있다오
死亦何所恨	죽으니 무슨 한이 있으며
生亦無所慚	살았을 때 무슨 부끄럼 있으리오
金龍巖天必監	김농암은 하늘이 보살펴니
豈必去故絕	어찌 고향 버려 인연 끊으리오
無參老死城	늙어 죽은 곳 알 수 없으니
嗟何堪	이 슬픔 어찌 감당하리

작가가 金龍巖을 素材로 선택한 것은 金澍의 節義精神을 높이 평가하여 後人們로 하여금 志節의 態度를 高揚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史話의 投影樣相을 보면 事實的인 面과 創作的인 面이라 하겠다. 이 작품의 1, 2, 3, 4, 5, 6行에서는 史話를 詩化한 事實의 表현이며 12行부터 마지막까지는 史話에 없는 사실을 작가가 創作한 것이다. 前半部가 客觀的인 表現이 되었다면 後半部는 主觀的인 表現이 되었다고 하겠다. 後半部에서 鄭圃隱과 元耘谷을 引用한 것에서 작가의 節義에 대한 態度를 알 수 있으며, 金澍의 節義가 더 둘보이게 됨도 엿볼 수 있다.

작품(14) 黃麻布

高麗忠烈王時 蔡謨爲慶尙道勸農使 多斂細麻布 以事王及左右 及李德孫薛仁永等
相繼爲勸農使 倍增其數而布極細 其後朱仁遠爲按廉勸農使 貢二十升黃麻布 王令左右爭取之爲戲 宰相言於王 請罷之 王不從 今宜寧永川等地 猶產此布 目爲黃苧布
概以麻爲之 以色如新柳 薄如蟬翼者爲良

黃麻細布	황마의 가는 배
美于紈素	비단처럼 아름답네
雖堪爲衣	저고리는 만들어도
不敢爲袴	바지는 못 만들어요
誰其理之	누가 그걸 다루어서
束麻一絲	삼을 묶어 실오리 만들었네
誰其貿之	누가 그걸 바꾸었나
一尺丈絲	한자의 가는 갈포
齒裝北馬	북마에게 장식하니
謂王人者	관리라 일컬겠네
既取我藏	벌써 내것 취해놓고
又徵我賈	또 내게 값을 징수하네
鷹坊僕夫	웅방의 관리들

攘勉胡盧	입 가리고 웃으며 빼앗기 힘쓰네
忽赤之事	훌륭한 잔치에
以席聚舖	자리펴고 베모으네

앞에서 논의한 작가의 의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對立的인 面이 강조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도 史話의 두 부분, 즉 관리들의 苛歛과 黃麻布의 아름다움을 投影시켰다. 그러면 관리들만 만드는 모습, 관리들의 비유적인 表現 등은 作家가 創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黃麻布에 대한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강조되고 民衆들의 고난은 한층 강하게 상징이 된다. 이렇게 힘들여 만든 베를 관리들이 과중하게 겉우어 갈 때 관리들에 대한 농민들의 원망도 더 한층 강하게 상징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당시의 관리들에게 주는 교훈성과 풍자성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앞의 두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史話에 없는 것을 창작한 부분은 작가가 史話を 意識하는 態度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金龍巖에서는 金澍의 節義에 대한 作家의 意識이 同情的인 것이기 때문에,同情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同情的인 要素를 創作 附加했고 黃麻布에서는 反感的인 것이기 때문에,反感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反感의 要素를 創作·附加한 것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史話의 내용을 再構成한 것으로서 史話에 대한 作家의 解釋態度도 아울러 보여 주는 것이다.

4) 事實의 客觀的 表現

樂府는 史話의 事實을 讀者에게 傳達하려는 意圖에서도 쓰여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史話의 내용을 그대로 詩에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에 의해 나타내기도 했지만 사실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작품에 나타내고 표현만을 詩化한 경우가 있다. 史話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객관성을 지닌 경우가 있다. 詠史樂府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전연 없다는 말은 아니며 일반적인 漢詩에 비해 더 객관성이 짙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주관성이 공유하지만 작품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嶺南樂府도 史話を 근거로 해서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부 객관성과 주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本項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史話의 構

成을 그대로 시에 投影시키면서 詩行에 나타난 표현까지도 史話의 사실을 드러내는 작품의 양상이다. 작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작품(15) 金花郎

金庾信東京人 父舒玄庚辰夢 焚惑降於己 母明嬪 十二月而生 父以庚與庚字相似
辰與信聲相近 遂名之 年十五爲花郎 時人洽然服從 號龍華香徒 後以平百濟高句麗
功 授太尉 舒發輸之職 食邑五百戶 文武十三年薨 與德王追封 爲興武大王

金花郎國之光	김화랑은 나라의 빛
行年十五龍華香	열다섯에 용화향도
文猷武略	문무가 뛰어나
百難當句麗	여러 가지 어려워도 고구려를 이겼고
百濟驕驚惶	백제는 겁을 내어 바로보지 못하니
今人謫爾興武王	오늘사람 그대를 흥부왕이라네

이 작품도 작가의 對人物觀에 따라 素材를 擇한 것이라 생각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史話의 内容을 약간의 變轉을 통해 나타났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적인 시에도 찾아볼 수 없고, 擴大나 응축의 내용도 드러나지 않는다. 主觀的인 서정보다는 객관적인 서술에 더 치중한 것이다.

작품(16) 萬波息笛

神文王時 東海中有小山 隨波往來 王使人汎海入山 有竹一竿 命作笛吹之 兵退病
愈旱兩雪晴風定波平 號萬波息笛 孝昭王時 加號萬萬波波息笛

山搖搖	산이 흔들리니
竹蕭蕭	대나무 쓸쓸하고
山來竹遭斷	산이 오면 대나무 쪼개어
山去竹叢號	산이 가면 파리를 부네
但使時豊人和海不揚潮	단지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파리를 불게 하니 바다가 온 화하여 파도가 일지 않아
千秋萬歲翊王朝	천년만년 왕조를 둡네

이 작품은 史話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詩行의 순차적인 전개가 史話와 거의 일치하며 表現에 있어서도 類似한 점이 많다.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 작은 섬산이 있는 것을 반복을 통하여 리듬감있게 첫부분에 나타내고 있다. 이 노래와 史話는 모두가 靜的인 對象을 動的으로 나타내는 共通性을 지닌다. 하나의 傳說의 史話이기 때

문에 노래에서의 표현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노래에서 아무리客觀的인 표현을 하더라도作家의心象이 나타나고 생각이投影되어 있기 때문에主觀的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성이 앞선 노래는史話의內容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설적인 사건을 중시하는 소박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상과 같이樂府에投影된史話의樣相을 살펴 본 결과, 嶺南樂府에서史話과樂府와의關係는 매우 밀접함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한 작품이라도史話を素材로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史話는 그性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품에投影되었다. 樂府에는史話を 바탕으로 한作家의意識이projection되어 있으며, 이것은作家의史觀 또는對人物觀,對事物觀과도연결이 되는 것이다. 史話가projection되어 이루어진樂府의樣相은部分을擴大시키거나, 全體를縮小시키기도 했으며,事實과創作의調和,事物의客觀的表現등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은作家의創作態度와도 관련성이 있어서,作家가史話を 어떻게解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史話を樂府로projection시킨 것은 '이야기'가 '노래'로變貌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노래로 바꾼다는 관점에서의 고찰은 문학의 장르적變貌에 대한 것으로 '口傳'에 대한 것이다. 이점은史話와樂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역사적인 기록이 되고 이를 통해 노래로 바뀌게 되니 이야기를 곧바로 노래로 승화시킨 것 보다는 이야기를文章으로 기록한史話を 대상으로 노래를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史話→노래의과정으로 영남악부는 창작된 것이다. 영남악부 가운데에는 이런과정이 아닌 역사(史話)→악부, 설화(史話)→악부의과정으로 창작된 것도 있다. 이런과정에서史話는 작품의 이해를 위해作家가史話を기록해 넣은 경우라 생각된다. 여하튼嶺南樂府는史話란散文을통하여,詩란韻文의形式으로變貌시킨 것이다. 이런變貌樣相은朝鮮後期文學史에서근체시형태가줄어들고고체시가불어나며,서사적인서정시가많이나타나는점과그흐름을같이한다고하겠다.

史話와樂府의관계는 역사와 문학의 관계란넓은 의미로 확대시킬 수 있다. 嶺南樂府는歷史를 밀바탕으로 한史話を文學作品으로승화시킨 것이다. 따라서史話와樂府作品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史話を除外한작품연구는영남악부의실상을바르게파악할수없다고생각한다.

4. 作家의 樂府觀

李學達는 樂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으로 樂府를 치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今人病處大都 必欲作大好詩句 開口以警座 下筆以壓卷 瞻量處張 心力浪渴 所以今世以爲賢者 慾巧愈野 慾很愈醜 友不若平平常率之 猶可著手醫治也……詩不可不求平常 而不可不時用奇 以平常故 奇者愈見其奇 以見奇故 平常者雖多而不厭也¹⁵⁾.

이 글을 통해서 볼 때 李學達는 詩에서 허황되고 과장된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平常의인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때로는 기이한 것을 써야 平常의이면서 기발하고, 기발하면서 평상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奇異하거나 기발한 것이 바로 樂府의 素材와 같은 것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文學觀은 그의 작품 嶺南樂府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작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여지고, 史話를 중요시 다룬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樂府가 아닌 一般詩에서 李學達는 平常의인 言語를 썼다. 方言을 쓰기도 했다. 특히 李學達는 科詩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¹⁶⁾ 그러면서 그의 漢詩에서는 景物描寫의 寫實性을 나타내거나 民衆의 生活相과 現實認識을 素材로 채택했다.

李學達의 악부에 대한 所見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는 樂府集 序文에서 樂府는 三代以降에는 음악을 잊었고, 唐宋時代에 이르러서는 聲律에 구애되지 않고 뜻을 바로 말하여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옛날의 악부라는 명칭과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고 있다. 또 ‘有明李東陽著 西涯樂府別爲一集 務欲倅擬前古 力去平率則 又不知詩本言志之旨也’ 라 하여 擬古樂府를 비판했다. 그리고 ‘余之作此 盖不擇乎體裁之正 聲律之嚴 只以叙其本事 達其眞情 如香山石湖之爲則庶矣’¹⁷⁾라 하였다.

李學達의 詩觀과 윗글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악부에 대한 생각은 奇異한 素材를 사용해서, 聲律에 얹매이지 않고 事實을 平易하게 叙述하여 真正

15) 因樹屋集, 尺牘, 張7 ‘答成入書’(白源鐵, 洛上生李學達研究에서 再引用)

16) 儀之所言者 古文 而時世所好者 時文 譬之娼妓前說理學 不但 聽之者 邁邁 言之者尤當沒走取……(因樹屋集, 白源鐵, 前揭書 再引用)

17) 嶺南樂府 序文

한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그의 작품과 일치되는 생각인 것이다.

5. 結 言

以上 考察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李學遼가 嶺南樂府를 創作함에 있어, 直接的인 動機가 되는 것은 史話의 奇異性에 의한 것이며, 間接의인 動機는 金海에서 長期間의 流配生活로 因한 葛藤과 辛民을 해소하기 위해 저술에 힘쓴 것이라 하겠다.
- 2) 嶺南樂府의 素材는 주로 新羅와 高麗時代의 史話인데, 그 중 嶺南地方과 關係있는 忠臣, 烈女, 貪官污吏, 僧侶, 學者, 嫂女 등 인물과 遺跡, 歌曲, 器物, 佛塔, 地名 등을 소재로 택했다.
- 3) 作品에 投影된 作家意識은 對立의인 樣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調和의인 樣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對立의인 樣相은 相反되는 감정으로서 作家意識은 약한 자, 피지배자, 하종인의 편에 서서 강한 자, 지배자, 상종인의 비진실성을 폭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作家意識의 조화적인 양상은 友好的, 同情의인 관계로서 主題를 강조하고 있다.
- 4) 作品에 投影된 史話의 樣相은 部分을 擴大시켜 강조한 경우, 全體를 凝縮시킨 경우, 事實과 창작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事實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部分을 擴大시킨 境遇는 史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을 나타냈고, 全體를 凝縮시킨 경우는 史話의 内面性을 投影시켰으며, 事實과 創作의 調和를 이룬 경우는 어느 한 부분에서 史話を 나타나게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史話와 關聯있는 면을 創作, 附加해서 나타냈다. 史話を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는 史話의 모든 面이 중요시되어 시에서도 史話의 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史話を 投影시켜 樂府로 창작한 것은 ‘散文→韻文’이란 장르적 변모와 ‘이야기→노래’란 전승형태의 변모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시 ‘역사→문학’이라는 넓은 의미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嶺南樂府는 史話を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

문에 이런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史話와 樂府는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

5) 李學達의 樂府에 대한 생각은 奇異한 素材를 使用해서 聲律에 익숙하지 않고 事實을 平易하게 서술하여 眞正을 傳達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점은 그의 文學觀과도 일치하며 실제 작품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6) 本考는 嶺南樂府에 대해 作家意識과 史話의 投影樣相을 中心으로 고찰한 것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李學達의 다른 작품 ‘海東樂府’와 ‘嶺南樂府’를 함께 다루는 기회에 보완코자 한다.

參 考 文 獻

金富軾, 三國史記(民族文化推進會影印本), 1982.

一 然, 三國遺事(民族文化推進會影印本), 1977.

延世大, 東方學研究所編, 高麗史.

李學達, 嶺南樂府(서울대 가람문고社).

沈慶昊, 조선후기 한시의 자의식적 경향과 해동악부체, 韓國文化 2,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1.

_____, 海東樂府研究, 1981,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李慧淳, 韓國樂府研究 Ⅰ, 韓國문화연구논총 3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1981.

_____, 韓國樂府研究 Ⅱ～主題와 變奏～·東洋學 12輯,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

尹榮玉, 東都樂府研究, 新羅伽倻文化 12輯,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81.

_____,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0.

白源鐵, 洛下生李學達研究~實學派文學의 一例~, 成均館大 大學院 碩士論文, 1981
金相洪, 丁茶山의 樂府詩研究, 단국대 논문집 13.

金宗鎮, ‘海東樂府’를 통해 본 星湖의 歷史 및 現實認識, 始林 2, 慶州大學, 1982.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韓國漢文學研究 1, 1979).